

#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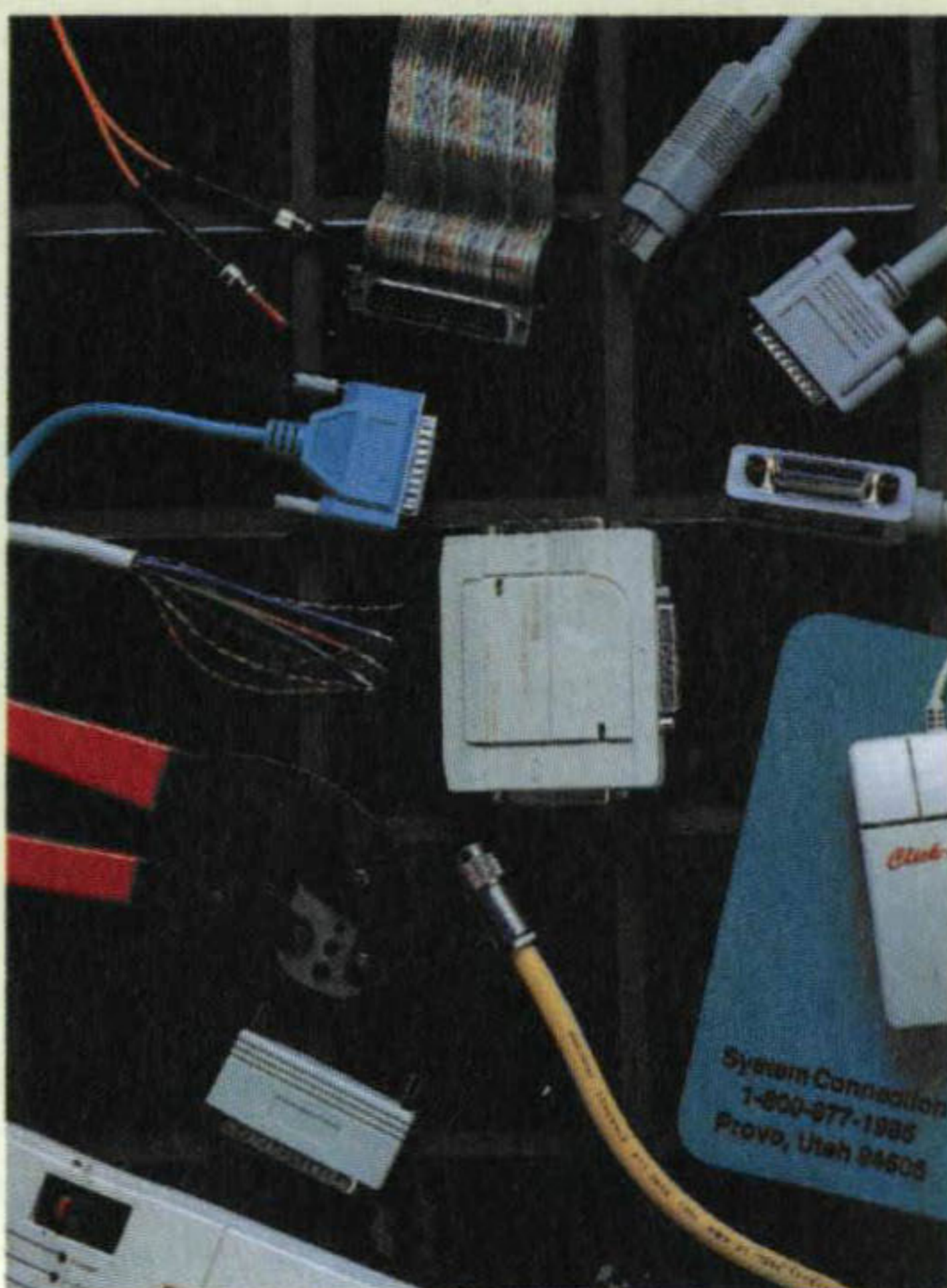
내창업/한국무역시장정보주식회사

**정**보의 효용가치에 대해 우리는 익히 알고있다. 정보의 활용여하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운택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경쟁상대방보다 앞설 수 있다.

이같은 정보는 여러 미디어(인쇄물, 음성, 사진, 영화 등)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어 정보를 통해 얻게되는 이익보다 많아질때 그 가치는 줄어든다.

데이터베이스의 존재가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소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조직)에게 좀 더 손쉽고, 적은 비용으로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물론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는 On-line 상태에서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CD-ROM을 통해 Multi-media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우리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외국의 영화속에서 보던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PC를 통해 신문을 보고, 항공권을 예약하며, 주식시장현황을 파악



투자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전자메일)를 보낼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PC나 메인프레임을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씬으로 인해 산업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의 입법·사법·행정부의 업무도 국가행정전산망이라는 이름하에 정보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얼마전까지도 한국의 기업에서 경쟁기업체의 일반현황·재무상태 및 품목별 매출액 등을

알기위해서는 기업총람이라는 책자를 통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On-line으로 연결해 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책자를 통했을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기업에 일일이 책갈피를 꽂아가며 필요한 정보일 경우에는 복사를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를 하였으며, 정보량이 많을 경우에는 Word Processor로 일일이 입력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는 즉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불과 몇분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정보를 외국어로 된 자료로 본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정보의 종속화를 차치하고라도 외국기업에 국내의 기업정보시장을 송두리채 빼앗겨 버려 자칫 정보의 국가경쟁력을 애초부터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시작한 것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금융권의 필요에 의해서였다.

한국신용평가(주)의 NICE-TIPS, 한국신용정보(주)의 KIS-LINE,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정보 등이 그것이고, 마케팅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구축한 것은 한국무역시장정보(주)의 기업정보가 최초였다. 1980년대에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시작할 당시에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겪은 가장 어려운 점은 과연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가? 라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제일 우선의 문제였다. 물론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는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라는 것과, 두뇌산업이라는 매력에 이끌려 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입했다. 그러나 막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원천자료(Source data)의 확보 곤란, 인력부족으로 인한 검색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움, 고가의 하드웨어, 선택할 유통망의 부족, 지방 이용자를 위한 노드의 부족, 데이터 입력 포맷의 표준화 등 많은 문제점에 봉착했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책자에 익숙한 일반인의 정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 없었고, PC의 낮

은 보급대수는 큰 난관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계속적인 투자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 진흥정책이 나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저리의 융자자금을 민간업체에 지원하기 시작했고, 또한 94년에는 공공DB개발 자금이라는 융자가 아닌 출연자금을 업계에 내주기 시작했다. 이 자금은 97년까지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한다. 업체의 입장에서 가뭄에 비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다.

데이터베이스기업에 세제지원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을 낼 정도의 매출액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경우이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의 매출액이 면세점 보다 낮다는 얘기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다.

현재 정보화가 앞선 나라는 선진국이다. 산업혁명의 선도에 섰던 이 국가들이 지난 200여년간 부와 함께 세계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제는 정보혁명의 차례이다. 정보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보혁명은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구성

하고 있는 구성체 저마다의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측에서는 201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하겠다고 하며, 멀티미디어 계획 등 혁명의 인프라가 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표준화라든지 정보공개에 관한 일들이 지금 한창 진행중이다. 기업측면에서 보면 새로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한 수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수도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학계 및 연구계에서도 기술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다.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제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산업에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17-18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도 고도정보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후손에게는 20세기초 우리 민족이 겪었던 한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정보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야 할때다. DB